

# 여대생의 체형인식 및 감성지능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

채현주

충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Relationships between body type percep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xual assertiveness of female college students

Hyun-Ju Cha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oong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여대생의 체형인식 및 감성지능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충남 소재 2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 288명이며, 자료수집은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3월 1일에서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여대생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r=.25, p<.001$ ), 체형인식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영향요인은 종교, 첫 이성교제 시기, 체질량지수, 및 감성지능이었으며, 설명력은 18.7%이었다. 따라서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 감성지능 증가를 위한 중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대생의 체형인식과 성적자기주장에 관계에 대한 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체질량지수, 체형인식, 감성지능, 성적자기주장, 여대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body type percep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xual assertiveness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288 nursing students of two universities in Chungnam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March 1 to May 20, 2017.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BM SPSS 20.0 program. The higher the emotional intelligence, the higher the sexual assertiveness( $r=.25, p<.001$ ), but sexual assertiveness according to body type perception were not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were religion, time of first relationship, body mass index, and emotional intelligence, which accounted 18.7%. Therefore, interventions for improving sexual assertiveness of female college students should include interventions for improving emotional intelligence.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type perception and sexual assertiveness of female college students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 Body Mass Index, Body Type Perception, Emotional Intelligence, Sexual Assertiveness, Female College Student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성적자기주장은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거절하고 성적 만족을 초래하는 성적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으로[1], 성 관련 행동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2]. 성적자기주장은 성관련 상황에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콘돔 사용과 같은 안전한 성행동에 대해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요구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 등을 직접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이다[3,4]. 성적자기주장은 원치 않는 성행동을 예방하고 안전한 성행동을 위한 중요한 예측요인으로[2,5], 성적자기주장이 높으면 자신의 성적 요구를 표현하고 성적 충동은 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성적 만족감을 높이고 성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6]. 이에 반해, 성적자기주장이 낮으면 원치 않는 성행동을 거절하거나 피임 사용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 원치 않은 임신이나 성병 감염, 테이트 폭력과 같은 여러 가지 성 문제를 가지게 된다[7-9]. 따라서 성관련 문제를 예방 및 안전하고 건강한 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 관련 상황에서 성적자기주장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행동 제약을 덜 받는 대학생 시기는 이성교제와 성적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다[9,10]. 대학생의 성 경험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의 78.6%가 이성교제 경험이 있으며[11], 대학생의 65.5% (남학생 71.5%, 여학생 60.2%)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2]. 그러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 성관계시 항상 피임을 하는 경우는 57.8%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1]. 이러한 낮은 피임 실천율은 원치 않은 임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10],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9.4%에서 임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1], 원치 않은 임신은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지게 되고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합병증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 임신 경험 대학생의 91.4%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으며, 인공임신중절 경험 대학생의 32.7%는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합병증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1]. 또한 피임을 하지 않은 성관계일 경우 계획되지 않은 성관계일 수 있으므로 원치 않은 임신이나 인공임신중절 뿐 아니라 성병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대학생의 3.7%에서 성병 감염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1]. 원치 않은 임신, 인공임신중절, 성병 감염 등은 여성의 몸에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한다[13].

따라서 이러한 성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대생 스스로가 피임 사용과 같은 안전한 성 관계를 요구하고 안전하지 않거나 원치 않은 성관계는 거절하는 성적자기주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은 자신의 성 관련 요구를 표현하거나 원치 않는 성행동을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며[14,15], 남성에 비해 원치 않은 성관계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6]. 또한 대학생이 성관계 시 주로 사용하는 피임법은 콘돔과 같은 남성 주도형 피임법으로[11,17], 여성이 직접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하는 방법이다. 이는 성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관련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자신의 성 건강을 위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6,13]. 그러나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성 관련 지식과 정보 전달 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성 관련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 관련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18]. 또한 성폭력이나 테이트 폭력과 같은 성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대학생들의 피해 경험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9] 이러한 성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 관련 지식과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여대생의 성 건강을 위해서는 성 관련 지식의 강화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자기주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10,13].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경험[5,10], 성역할 고정관념[5,13,15,18], 자기주장[13], 자아존중감[18,19], 자기효능감[6,20] 등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성 관련 행동이 신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8], 체형인식과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체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예방적 성행동과 관련 있으며[8,21-23], 체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위험한 성행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4]. 체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위험한 성행동과 관련 있는 것은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은 콘돔 사용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몸을 보호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8]. 이는 자

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콘돔 사용을 주장하거나 성과 관련된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는 등의 성적자기주장과도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형인식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를 파악하여 체형인식을 성적자기주장 증진을 위한 중재 요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체형인식과 성적자기주장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23],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성적자기주장은 성 관련 상황에서의 대인관계에 대한 개념이므로,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도록 하는 감성지능[25,26]이 성적자기주장과 관련 있을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감성지능은 위험한 성행동에 대한 보호 작용을 하며[27],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8]. 따라서 감성지능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체형인식 및 감성지능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를 파악하여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체형인식 및 감성지능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여대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여대생의 감성지능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체형인식 및 감성지능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 소재 2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인

여학생 중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학생 29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288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5개로 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수는 138 명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2.3 연구도구

### 2.3.1 체형인식

체형인식은 자신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단일문항으로 체형인식을 측정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체형인식 범주를 3가지로 수정하여, '마름', '보통(정상)', '비만' 중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체형인식 일치도는 [체형인식-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로 산출하였으며, BMI는 체중[kg]/신장[m<sup>2</sup>]으로 산출하였다. BMI는 대한비만학회의 비만진료지침[29]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참고하여 18.5 미만은 저체중, 18.5 이상 23.0미만은 정상, 23.0 이상 25 미만은 비만 전 단계, 25이상은 비만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 시 비만 전 단계와 비만은 정상 초과로 분류하였다. [체형인식-BMI]가 양의 값인 경우 '과다인식', 음의 값인 경우 '과소인식', 0인 경우 '바른인식'으로 구분하였다.

### 2.3.2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과 Law[30]가 개발한 감성지능 측정도구를 Jung[31]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감정에 한 평가(self-emotion appraisal, SEA) 4문항, 타인의 감정에 한 평가(other's emotion appraisal, OEA) 4문항, 감정의 사용(use of emotion, UOE) 4문항, 감정의 조절(regulation of emotion, ROE)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16점~112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Wong과 Law[3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9\sim.82$ 이었고, Jung[31]의 연구에서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 2.3.3 성적자기주장

성적자기주장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성적자기주장은 단순히

성행동에 대한 거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3,4]. 따라서 성적자기주장 도구 문항에 일치 않는 성행동에 대한 거부 뿐 아니라 원하는 성행동에 대한 요구를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성행동은 기존의 성적자기주장 측정 도구 및 대학생들과의 사전면담 결과를 고려하여 예방적 성행위인 콘돔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성행동을 포함하였다. 성적자기주장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18점에서 90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된 도구는 여성건강간호학 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대학생 10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부 전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설문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함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는 자발인 것임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동의서 및 설문지는 수거함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동의서 및 설문지는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설문지 수거함에 넣도록 하여 작성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구 참여 여부 노출로 인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 자발적인 연구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win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BMI, 및 체형인식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 2)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성적자율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BMI와 체형인식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t 검정을 실시하다.

- 4)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성적자기주장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자기주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은 종교가 있는 학생이 종교가 없는 학생에 비해 성적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다( $t=2.92, p=.004$ ).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성적자기주장이 높았으며( $F=4.27, p=.015$ ), 대학교 이전에 첫 이성교제를 경험한 학생이 대학교에서 첫 이성교제를 경험한 학생에 비해 성적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다( $F=4.69, p=.010$ ). 학년이나 성경험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Table 1. Sexual assertive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8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xual assertiveness (M±SD)
Grade	Freshman	48(16.7)	68.38±8.84
	Sophomore	66(22.9)	68.21±10.80
	Junior	86(29.9)	65.12±8.79
	Senior	88(30.5)	66.93±9.21
	F(p)		
Religion	No	162(56.3)	65.51±9.13
	Yes	126(43.7)	68.75±9.60
	t(p)		
Number of relationship	No	56(19.5)	63.68±10.70 <sup>a</sup>
	1	60(20.8)	68.13±9.03 <sup>b</sup>
	≥ 2	172(59.7)	67.56±8.99 <sup>c</sup>
	F(p)		
Time of first relationship	> High school	94(40.5)	68.55±8.87 <sup>a</sup>
	High school	64(27.6)	69.41±9.80 <sup>b</sup>
	University	74(31.9)	65.16±7.91 <sup>c</sup>
	F(p)		
Sexual contact*	None	10(4.4)	67.60±3.69
	Skin-ship	182(80.5)	67.76±9.18
	Intercourse	34(15.1)	66.47±9.27
	F(p)		

\*. valid percent

### 3.2 BMI 및 체형인식에 따른 성적자기주장

BMI가 정상인 학생이 BMI가 저체중 또는 정상을 초과한 학생에 비해 성적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다( $F=6.81, p=.001$ ). 체형인식 및 BMI와 체형인식 일치도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Table 2. Sexual assertiveness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and body type perception (N=28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xual assertiveness (M±SD)
Body Mass Index (BMI)	Under weight	56(19.4)	64.04±8.77 <sup>a</sup>
	Normal	198(68.8)	68.28±9.92 <sup>b</sup>
	> Normal	34(11.8)	63.76±5.23 <sup>c</sup>
	F(p)		6.81(.001) <sup>a,c&lt;b</sup>
Body type perception (BTP)	Thin	54(18.8)	66.89±10.03
	Normal	152(52.8)	67.42±10.29
	Obesity	82(28.5)	66.02±7.25
	F(p)		0.58(.561)
Consistency of BTP and BMI	Heavier perception	70(24.3)	66.11±8.27
	Right perception	196(68.1)	66.99±9.68
	Lighter perception	22(7.6)	68.91±11.05
	F(p)		0.74(.476)

### 3.3. 감성지능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112점 만점에 80.01(±10.75)점이었으며, 성적자기주장은 90점 만점에 66.92(±9.4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고).

Table 3.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xual assertiveness(N=288)

	Possible range	Min	Max	M±SD
Emotional intelligence	16~112	48	108	80.01±10.75
SEA	4~28	12	28	21.36±3.33
OEA	4~28	9	28	21.40±3.14
UOE	4~28	6	28	18.66±4.26
ROE	4~28	8	28	18.58±4.31
Sexual assertiveness	18~90	34	90	66.92±9.46

SEA=Self-Emotion Appraisal; OEA=Other's Emotion Appraisal; UOE=Use Of Emotion; ROE=Regulation Of Emotion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25, p<.001$ )(Table 4 참고).

Table 4.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xual assertiveness(N=288)

	Emotional intelligence r(p)
Sexual assertiveness	.25(<.001)

### 3.4 성적자기주장 영향요인

대상자의 성적자기주장 영향요인은 종교, 첫 이성교제 시기, BMI, 및 감성지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8.7%인 것으로 나타났다( $F=8.04, p<.001$ ). 종교가 없는 학생에 비해 종교가 있는 학생의 성적자기주장이 높았고( $\beta=.18, p=.001$ ), 첫 이성교제 시기가 대학교인 학생에 비해 고등학교 이전( $\beta=.25, p=.001$ )인 학생과 고등학교( $\beta=.17, p=.012$ )인 학생의 성적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다. BMI가 정상인 학생이 BMI가 저체중인 학생에 비해 성적자기주장이 높았으며( $\beta=-.19, p=.001$ ),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21, p<.001$ )(Table 5 참고).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assertiveness(N=288)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48.90	4.07		12.01	<.001
Have a religion <sup>#</sup>	3.48	1.41	.18	3.31	.001
Number of relationship-1	2.80	1.69	.12	1.65	.099
Number of relationship≥2	-0.27	1.72	-.01	-0.15	.878
Time of first relationship-before high school <sup>*</sup>	4.97	1.47	.25	3.38	.001
Time of first relationship-high school <sup>*</sup>	3.92	1.56	.17	2.52	.012
Body Mass Index (BMI)-underweight <sup>§</sup>	-4.64	1.32	-.19	-3.51	.001
BMI > normal <sup>§</sup>	-3.14	1.66	-.11	-1.90	.059
Emotional intelligence	0.19	0.05	.21	3.74	<.001

R=.433, R<sup>2</sup>=.187, Adj. R<sup>2</sup>=.164, F=8.04, p<.001, Durbin-Watson=1.939

<sup>#</sup> reference: no religion, <sup>\*</sup> reference: Time of first relationship-university, <sup>§</sup> reference: normal BMI

#### 4.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의 체형인식 및 감성지능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체형인식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위험한 성행동과 관련되어 있다[23,24]. 반면, 체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예방적 성행동과 관련되어 있는데[23], 자신의 체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여성은 콘돔 사용, 성 파트너에게 성병 검사 요구, 및 성 파트너의 이전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8,21,22]. 따라서 자신의 체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여성은 성적자기주장을 잘 하는 반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여성은 성적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해 위험한 성행동에 노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체형인식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을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체형에 대한 인식은 일차원적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체형에 대한 인식이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포괄적인 측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8]. 따라서 체형에 대한 인식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여성의 체형인식을 측정하고 성적자기주장과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체형인식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에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 BMI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에서는 BMI가 정상인 학생이 BMI가 저체중이거나 정상을 초과한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회귀분석 결과 BMI가 정상인 학생이 저체중인 학생에 비해 성적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MI나 체형에 따른 성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체형이 클수록 위험한 성행동 가능성이 낮아지며[32], BMI가 높을수록 예방적 성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3]. 그러나 체형이 클수록 위험한 성행동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고하기도 하였는데[33], 이는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체형은 위험한 성행동과 관련된 요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23]. 본 연구에서는 BMI가 낮은 저체중인 여학생이 정상인 여학생에 비해 성적자기주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도 BMI 자체만을 측정하였으므로 추후 BMI에 대

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BMI에 대한 인식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감성지능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으로[34], 정서적인 측면과 대인관계 영역에서 중요한 개념이다[35]. 감성지능이 낮은 경우 감정을 조절하거나 표현함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36], 과도한 음주와 같은 건강 관련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며[28], 성 건강과 관련해서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와 같은 안전하지 못한 성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8,37]. 반면 감성지능은 위험한 성행동에 대해 보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성관계를 할 것인지 또는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성파트너와 얘기하고 결정하는 것은 감성적 맥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성지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27].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한 성행동 또는 안전한 성행동을 초래하는 의사결정과 감성지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므로, 반복연구를 통한 근거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감성지능은 학습이 가능하며[28], 중재를 통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38,39] 성적자기주장 증가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에 감성지능 증가를 위한 중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영향요인은 종교, 이성교제 시기, BMI, 및 감성지능인 것으로 나타나 BMI와 감성지능 이외에 종교유무와 첫 이성교제 시기도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은 종교가 있는 학생이 종교가 없는 학생에 비해 성적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학생이 종교가 없는 학생에 비해 성적자기주장이 높았음을 보고한 선행연구[13]와 일치하는 결과이나, 종교 유무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선행연구[10,18,40]와는 차이가 있다. 종교는 성적 규범과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41], 종교별 전통이나 윤리는 여성의 성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42]. 따라서 종교와 성적자기주장의 관계는 추후 계속적인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종교의 유무 뿐 아니라 종교의 종류나 종교생활 충실도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첫 이성교제 시기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은 첫 이성교제 시기가 대학교인 학생에 비해 고등학교 이전인 학생과 고등학교인 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첫 이성교제 시기와 성적자기주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없어 선행연구와의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성교제와 관련하여 이성교제 경험이나 이성교제시의 성경험 여부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다[5,6,10,13]. 이성교제 경험에 있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성적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으나[10], 이성교제 경험이 많으면 성적자기주장이 낮게 나타남을 보고하기도 하였다[5]. 성경험에 있어서도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성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성적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10]한 반면, 성경험이 없는 경우가 성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해 성적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기도 하였다[[5,6,13,40]. 이러한 결과들은 이성교제 경험이나 성경험 자체가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교제 경험이나 성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를 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첫 이성교제 시기에 따라 성적자기주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추론해 보면 첫 이성교제 시기에 의한 차이가 아닐 수 있으나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첫 이성교제 시기와 성적자기주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한 근거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대부분의 대학생이 이성교제 경험이 있고 이성교제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태[43,44]를 고려하면 이에 대한 연구는 시급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의 체형인식 및 감성지능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여대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은 차이가 없었으나, 감성지능은 성적자기주장의 영향요인으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감성지능을 중재 요인으로 활용하고 감성지능 증가를 위한 중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충남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 간호학

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여대생 전체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해 실증적인 근거자료를 구축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적자기주장 증가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 감성지능 증가를 위한 중재를 포함하고 감성지능의 증가가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체형인식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형인식과 성적자기주장과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실시되지 않은 실정으므로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한 근거자료를 구축할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S. S. Rostosky, O. Dekhtyar, P. K. Cupp & E. M. Anderman. (2008). Sexual self-concept and sexual self-efficacy in adolescents: A possible clue to promoting sexual health? *Journal of Sex Research*, 45(3), 277-86. DOI : 10.1080/00224490802204480
- [2] Y. S. Seo & Y. C. Kwon. (2016). A path analysis of variables influencing convergence-based safer sexual behavior of early adul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7), 299-307. DOI : 10.14400/JDC.2016.14.7.299
- [3] E. Hatfield, C. Luckhurst & R. L. Rapson. (2011). Sexual motives: The impact of gender, personality and sexual motives on sexual behavior-especially risky sexual behavior. *Interpersona*, 5(2), 95-133. DOI : 10.5964/ijpr.v5i2.60
- [4] L. M. Mercer Kollar et al. (2016). Do as I say: Using communication role-plays to assess sexual assertiveness following an intervention. *Health Education & Behavior*, 43(6), 691-698. DOI : 10.1177/1090198116630528
- [5] H. J. Kim. (2018).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of unmarried wome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0), 467-474. DOI : 10.5762/KAIS.2018.19.10.467
- [6] K. W. Kim, K. H. Kang & G. H. Jeong. (2012). Self efficacy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1), 51-59. DOI : 10.5932/JKPHN.2012.26.1.051
- [7] S. Y. Son & S. M. Li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consent to unwanted sex: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University Life Research*, 17(2), 17-36.

- [8] B. A. Auslander, J. Baker & M. B. Short. (2012). The connection between young women's body 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Journal of Pediatric and Adolescents Gynecology*, 25(2), 127-130.  
DOI : 10.1016/j.jpag.2011.11.008
- [9] E. S. Lee & H. S. Kang. (2014).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gender role stereotype, sexual assertiveness, sexual assault recognition,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and sexual violence experience in dating. *Journal of Ease-West Nursing Research*, 20(1), 48-56.  
DOI : 10.14370/jewnr.2014.20.1.48
- [10] G. Y. Cho & Y. H. Kim. (2014). Factors affecting sexual autonomy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1), 6710-6718.  
DOI : 10.5762/KAIS.2014.15.11.6710
- [11] K. R. Shin et al. (2011). *Survey on actuation sexual attitude among college students*. Sejong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12] J. A. Kim & J. Y. Lee. (2014).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and the Related Predicting Factors for Sexual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0(3), 71-80.
- [13] Y. H. Kim, S. T. Moon & H. S. Kang. (2013). Factors influencing on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3), 166-175.  
DOI : 10.4069/kjwhn.2013.19.3.166
- [14] J. M. Tschann, E. Flores, C. L. de Groat, J. Dearthoff & C. J. Wibbelsman. (2010). Condom negotiation strategies and actual condom use among Latino youth. *Th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7(3), 254-262.  
DOI : 10.1016/j.jadohealth.2010.01.018
- [15] M. Asadi, H. Siavoshi, A. Shiralipour, A. M. Nazry, M. Miri & S. Shayad.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communicational belief with sexual assertiveness on women.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5, 922-926.  
DOI : 10.1016/j.sbspro.2011.03.213
- [16] J. I. Ahn & Y. G. Ko. (2014). Effects of consensual unwanted sex and attachment on satisfaction with romantic relationship.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9(3), 233-251.  
DOI : 10.18205/kpa.2014.19.3.003
- [17] S. M. Koo. (2017). Lighting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1(3), 116-120.
- [18] S. H. Choi. (2016).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of women university student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5(4), 367-374.  
DOI : 10.12934/jkpmhn.2016.25.4.367
- [19] S. M. Park & W. Y. Song. (2012). The effects of rape myth and tolerance towards violence on dating to the sexual assertiveness in college wom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7(2), 265-280.  
DOI : 10.18205/kpa.2012.17.2.010
- [20] E. S. Do & Y. S. Seo. (2013). Factors influencing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2), 129-136.  
DOI : 10.7739/jkafn.2013.20.2.129
- [21] D. L. Brown, T. Webb-Bradley, P. D. Cobb, D. Spaw & K. N. Aldridge. (2014). African American women's safer sexual practice: The influence of ethnic-racial socialisation and body esteem. *Culture, Health, and Sexuality*, 16(5), 518-532.  
DOI : 10.1080/13691058.2014.891048
- [22] M. M. Gillen & C. N. Markey. (2014). Body image and HIV risk among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38(6), 816-822.  
DOI : 10.5993/AJHB.38.6.3
- [23] V. R. Winter. (2017). Toward a relational understanding of objectification, body image, and preventive sexual health. *Journal of Sex Research*, 54(3), 341-350.  
DOI : 10.1080/00224499.2016.1190807
- [24] L. Woertman & F. van den Brink. (2012). Body image and female sexual functioning and behavior: A review. *Journal of Sex Research*, 49(2-3), 184-211.  
DOI : 10.1080/00224499.2012.658586
- [25] K. J. Ji & J. Y. Yu. (2013). A stud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happiness university student division of heal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0), 653-660, 2013.  
DOI : 10.14400/jdpm.2013.11.10.653
- [26] R. Fernandez, Y. Salamonson & R. Griffiths. (2012). Emotional intelligence as a predictor of academic performance in first year accelerated graduate entr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1(23-24), 3485-3492.  
DOI : 10.1111/j.1365-2702.2012.04199.x
- [27] E. Lando-King et al. (2015). Relationships between social-emotional intelligence and sexual risk behaviors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Sex Research*, 52(7), 835-840.  
DOI : 10.1080/00224499.2014.976782
- [28] A. Lana, E. M. Baizan, G. Faya-Ornia & M. L. Lopez. (2015). Emotional intelligence and health risk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54(8), 464-467.  
DOI : 10.3928/01484834-20150717-08
- [29]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8).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overweight and obesity in Korea*. Seoul :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 [30] C. S. Wong & K. S. Law.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DOI : 10.1016/S1048-9843(02)00099-1



- [31] H. Y. Jung. (2006). *Effectiveness of emotional leadership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foodservice employee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contracted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y*.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32] J. J. Sabia & D. I. Rees. (2011). The effect of body weight on adolescent sexual activity. *Health Economics*, 20(11), 1330–1348. DOI : 10.1002/hecl.1674
- [33] V. R. Winter & S. Satinsky. (2015). Sexual behavior in a diverse heterosexual sample: The influence of BMI. *International Journal of Sexual Health*, 28(2), 129–140. DOI : 10.1080/19317611.2016.1150378
- [34] P. Salovey & J. D. Mayer.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1990. DOI : 10.2190/DUGG-P24E-52WK-6CDG
- [35] K. H. Kim & J. R. Park. (2017).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psychiatric patients on ability model: A convergent using performance test and self-report tes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2), 35–42. DOI : 10.15207/JKCS.2017.8.2.035
- [36] A. V. Burri, L. M. Cherkas & T. D. Spector. (2009). Emotional intelligence and its association with orgasmic frequency in women. *The Journal of Sexual Medicine*, 6(7), 1930–1937. DOI : 10.1111/j.1743-6109.2009.01297.x
- [37] D. Kaur, M. Sambasivan & N. Kumar. (2013). Effect of spiritual intelligence,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ownership and burnout on caring behavior of nurse: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2(21–22), 3192–3203. DOI : 10.1111/jocn.12386
- [38] O. S. Lee & M. O. Gu. (2014).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6), 682–696. DOI : 10.4040/jkan.2014.44.6.682
- [39] Y. Ryu, I. Kang & Y. Jeon. (2018). Develop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through a maker education program base on design thinking process for undergraduate students in an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7), 163–175. DOI : 10.15207/JKCS.2018.9.7.163
- [40] B. M. Kim & J. S. Park. (2015). Relationships among parent-child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for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1(1), 11–22. DOI : 10.4069/kjwhn.2015.21.1.11
- [41] S. Kellogg Spadt, T. Y. Rosenbaum, A. Dweck, L. Millheiser, S. Pillai-Friedman & M. Krychman. (2014). Sexual health and religion: A primer for the sexual health clinician (CME). *The Journal of Sexual Medicine*, 11(7), 1607–1618. DOI : 10.1111/jsm.12593
- [42] E. K. M. Darteh, K. S. Dickson & D. T. Doku. (2019). Women’s reproductive health decision-making: A multi-country analysis of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in sub-Saharan Africa. *PLoS One*, 14(1), e0209985. DOI : 10.1371/journal.pone.0209985
- [43] H. J. Lee, M. S. Yoon, Y. E. Kim & S. Y. Lee. (2018). A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college students’ tolerance and recogni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3), 115–125. DOI : 10.22156/CS4SMB.2018.8.3.115
- [44] H. J. Lee. (2018). An analysis of recent research on dating violence in Kore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4), 153–161. DOI : 10.22156/CS4SMB.2018.8.4.153

채 현 주(Hyun-Ju Chae)

[정회원]



- 2008년 9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성건강
- E-Mail : hjchae@joongbu.ac.kr